

‘광주의 사계’ 품은 명품 수목원 내년 탄생

13년만에 결실...남도의 멋 등 담은 시립수목원 내년 5월 완공 470억 들여 양과동 매립장 주변 조성...시민 교육·휴식공간으로

무등산 사계와 남도의 멋, 광주다움을 품은 광주 시립수목원이 조성 예정지 지정 13년 만에 탄생한다. 시립수목원이 조성되면 남도에 자생하는 식물이나 무등산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종을 연구하고 유전자를 보존·증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조감도〉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립수목원은 남구 양과동 광역 위생매립장 주변에 470억원을 투입해 24만6948㎡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 4월 착공해 현재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 2009년 조성 예정지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민선 7기들어 급물살을 타면서 1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광주는 그동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공립수목원이 없는 탓에 지역수종 등을 연구·보존하기 어렵고, 시민이나 외국인들에게 남도의 특색을 지닌 산림, 정원, 온실수목원 등의 체험향유 기회조차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립수목원은 환경의 숲, 무등산 사계숲, 미

래건강 숲 등 주제별로 3개 숲으로 구분해 조성된다. 환경의 숲은 시민이 들어오는 진입부에 위치하며 방문자센터, 전시온실, 전통정원 등을 설치해 남도의 멋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무등산 사계숲은 무등산을 상징하는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을 형상화한 잔디마당과 남도테마정원을 배치해 남도의 볼거리와 체험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향기, 자생, 약용식물원 등을 배치해 일상생활로 지친 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도심 속 치유공간을 꾸밀 계획이다.

미래건강 숲에는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 기후환경 변화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할 수 있는 다양성 연구원, 유전자 보전원, 유전자 증식원, 이를 재배할 수 있는 묘포장 등이 들어선다. 이곳은 지역 수목유전자의 생태적 가치를 연구하고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전달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과 시립수목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심 속 산림문화·휴양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



기로 했다. 광주시립수목원은 당초 계획됐던 62ha에서 24ha로 규모는 줄었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주변 국유림 내 산림사업과 연계한 이용 공간 확대 등이 가능해졌다. 산림청은 올해 도심권역 산림사업으로 사방댐 설치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임도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광주시립수목원 주변 국유림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국립수목원의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교류와 축적한 노하우, 기술, 정보 지원도 가능해져 최적

의 조건에서 생태 환경을 지켜내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남주 광주시 환경생태과장은 “수목 유전자원 보존은 물론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의 역할, 휴식 공간의 기능을 하는 도시형 수목원으로 조성하겠다”며 “교육, 휴식, 미관을 모두 아우른 시설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시장 ‘AI데이터센터’ 관련 오해 설명

이용섭 광주시장이 ‘국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오해를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카카오톡 채널에 ‘광주 AI데이터 센터,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을 광주 밖에서는 모두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부러워 하는데, 정작 우리 내부에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소통 부족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돼 최근 오해가 있는 AI데이터센터의 실상을 설명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세계 10위권 내 규모 과대 포장 등에 대해 관련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이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 NHN이 협력해 오는 2023년까지 광주 첨단 3지구 내에 3000억원(NHN 2100억원 투자)을 들여 조성하는 AI데이터센터는 컴퓨팅 연산 능력 88.5PF(페타플롭스)

로, 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 내에 든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다만 애초 설계된 88.5PF 중 20PF만 고성능 컴퓨팅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66.5PF는 AI기업의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 등으로 혼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존 연산 능력을 쪼개서 사용함에 따라 슈퍼컴퓨터 성능 기준 세계 10위권 내 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AI데이터센터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데이터센터로 그 규모(용량)는 세계 10위권 내이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누리온 5호기(25.7PF·세계 21위)보다 3배 이상 큰 규모”라면서 “일부에서 데이터센터의 구동방식에 따른 실측성능(20PF)를 놓고 누리온 5호기 보다 고성능컴퓨팅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구축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판문점 선언 3주기 통일걷기 대회 4.27판문점 선언3주년기념 통일 걷기대회가 열린 24일 참석자들이 광주 광산구 수안 풍영정천 일원을 걷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29일 덴마크 해상풍력기업 온택트 투자설명회

전남도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6일과 29일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 대상으로 온택트 투자설명회와 일대일 화상상담을 개최한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코펜하겐무역관, 주 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이 지원하는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회사인 오스테드, COP, 에퀴노르, 람블과 해상풍력의 핵심인 터빈을 제작하는 지멘스·가메사, 베스타스 등

2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오스테드는 덴마크 에너지 국영기업이면서 6.8GW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실적을 보유한 세계 1위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회사다.

지멘스·가메사는 해상풍력 시장점유율 세계 1위, 베스타스는 풍력 전체 시장점유율 세계 1위 기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바이오헬스케어’ 선정 해조류 기능성 제품화 길 열려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의 ‘해조류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조류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지원 사업’은 완도 신지면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 유효성 소재 실증장비를 구축하고 해조류 유래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및 제품개발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비 100억원을 포함 총 160억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한다.

조선대를 주축으로 12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해조류 소재 및 제품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소재의 유효성 실증을 통한 기업지원으로 전남지역 다양한 바이오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원물 단순가공(1차 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해조류는 후코이단, 알긴산 등 많은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천연물 의약품 등 기능성 소재로 개발하면 산업적 가치가 높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과장은 “해수부가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에 전남도를 바이오 소재 임상실험 지원 및 대량생산시설 구축 등을 통한 소재 공급기지로 개발키로 한 만큼, 완도에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재생산 기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여행상품 지원 확대 48개 업체 177개 상품 대상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행업체를 지원하고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남 여행상품 운영 지원(인센티브) 사업’을 대폭 확대, 다양한 테마와 체험거리를 담은 48개 업체의 177개 상품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24개 업체, 66개 여행상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 시대 여행업계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특히 차량당 지원하는 최소인원 기준을 20명에서 4명으로 완화해 소규모 전남 여행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다만 방역단계가 상향되면 여행상품 운영이 중단될 수 있고, 여행버스 1대당 정원의 60%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체온 측정, 방역물품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주요 선정 여행상품은 아름다운 바다관광도 즐기고 낚시도 하며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을 훌쩍 벗어던지는 낚시체험 힐링 상품,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마련한 펫투어 상품, 남도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체험하는 새로운 식도락 여행인 ‘쉐프와 함께하는 전남 맛 쿡킹 클래스’ 등으로 이색적이다. 누군가에게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먹어보는 소소한 행복을 이번 상품을 통해 누릴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 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